

장애인체전 전북선수단 출사표

오늘 필승다짐 대회 전북체육회관서... 장애인체전은 25일부터 5일간 전북도내 일원서 육상 전민제, 15년 연속 대회 3관왕 도전·유도 전승우·탁구 황인춘 등 신인 활약 주목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는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의 결단식 및 필승다짐 대회를 19일 전북체육회관 1층 장애인전용체육센터에서 갖는다. 이날 결단식에는 송하진 지사와 송성환 도의회 의장, 정호은 문화건설안전위원장, 도 장애인체육회 임원 및 경기연맹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결단식 행사는 출전보고 및 단기수여식, 필승을 다짐하

는 선수대표 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12개 시·군, 33개 경기장에서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 슬로건을 걸고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전북 선수단은 종합 6위를 목표로 25개 종목, 522명(선수 367명, 임원 155명)의 역대 최다 선수단이 출전하여 그동안 같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선수들을 보

면 지난 13일에 폐막한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한 육상트랙의 전민제 선수가 15년 연속 대회 3관왕을 노리고 있다. 또한, 신인선수로 국가대표에 발탁되어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유도 송나영, 송우혁 선수의 선전 및 작년대회 3관왕과 한국신기록 2개를 수립한 육상트랙 임준범 선수는 3년 연속 3관왕과 본인의

한국신기록 경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유도 전승우, 유도 신현호, 육상 장화익, 사이클 손효현, 권상현, 탁구 황인춘, 태권도 김민철, 김지수 선수가 꿈나무·신인선수 발굴사업을 통해 배출된 우수한 신인선수들로 대회 첫 출전 성과도 주목되고 있다. 그 밖에 구기종목에서는 남·여자 좌식배구, 뇌성·청각축구, 지적농구, 여자 골볼, 율해 신규팀을 구성한 휠체어러키, 시각축구, 개인종목으로는 육상, 론볼, 볼링, 수영, 유도, 배드민턴, 휠체어펜싱, 유도, 태권도, 사이클 등에 활약한다. /김진성 기자

KBS 전주방송총국, 전북농협과 전통문화 계승 사회 공헌 협약

KBS전주방송총국(총국장 김종진)과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전통문화 감성가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지난 17일 KBS전주방송총국에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진 총국장과 유재도 본부장 등 양 기관의 주요 인사와 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농업관련 방송정보 상호교류, 사랑의 김장김치 봉사 통한 나눔문화 확산, 어린이 김장체험을 통한 미래세대 농업기치 전파, 작거래 장터 운영으로 가계 경제 기여 등에서 협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13일 KBS전주방송총국 잔디광장에서 전북 김장김치 축제 한마당을 연다. 또한, 김장김치를 300여명이 직접 담가 취약계층에게 지원, 도민들에게는 김장재료 등 저렴한 가격으로 직거래 판매,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해경 시계 “세월호 참사 당시서 멈췄다”

참사 연루 간부 11명 중 아직도 5명 건재, 이중 2명은 승진 세월호 이후 정원 18% 가량 불렀으나 집안단속 등은 외면

세월호 참사의 주요책임자로 지목되었던 해양경찰청 핵심간부들이 아직까지 재직중이며 심지어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희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사진)이 1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연루 간부 11명 중 5명이 재직중이며 이 가운데 2명은 승진 했다. 얼마전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의 책임이 해경에 있다고 판단했다. 해경은 당시 초기 대응에 실패한데 이어 구조·수색 과

정에서도 민간업체에 끌려 다니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경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특히 언론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주요책임자로 당시 김모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11명의 핵심 간부가 지목됐다. 그러나 이들 11명에 대한 거취를 확인한 결과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해임, 의원면직 등의 형식을 통해 해경을 떠난 사람은 6명이고 나머지 5명은 아직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당시 해경의 2인자였던 최모 차장은 직위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 재직중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책임자 중 당시 경무관이던 고모씨와 여모씨는 승진하여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은 재직중에 있다. 책임을 져야 할 간부에게 매는 커녕 상을 주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해경은 세월호 이후 예산 14%, 정원 18%로 몸집이 커졌다”며 “해경의 시계는 세월호에서 멈춘 것 아니냐는 지탄을 면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뼈를 깎는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백두한라예술단의 무대... 진안홍삼축제 개막 18일 진안군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2018 진안홍삼축제'가 열린 가운데 탈북예술인으로 구성된 백두한라예술단 초청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진안군 제공·판권기사 9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관리 조례 발의

도의회 이정린 의원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사진)이 도내 시군별 천차만별인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에 대해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과 지정기준, 발급대행기간을 규정하고,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대행자가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차종별 수수료를 산출하여 도에 제출하게 하고 도는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한다. 또한 시군별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곳에 대해서는 도가 적정 수수료 금액을 정해 수수료 조정을 권고하도록 했다. /김진성 기자



이정린 의원은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시군별로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시군별로 적게는 9,000원(전주)에서 많게는 33,000원(무주)까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해 도민들의 피해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이제는 도가 나서 명확한 기준과 산출근거 등을 정하여 시군별로 같은 조건에서 요금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한 치의 불편함이나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교육위, 행감·예산심의 현장의정활동

미세먼지 대책 마련 위해 익산 부송초교 방문·군산상고 야구부 선수들 격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가 18일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심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장의정활동을 벌였다. 이날 교육위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익산 부송초교를 방문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설치된 공기청정기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 설

치 후 학교에서 제대로 필터를 관리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했다. 최근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학교들의 교실 공기 질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미미했기 때문이다. 교육위 의원들은 미세먼지 저감에 공기청정기가 대안이 아니라면, 공기순환기 설치와 실내·외 청소와 노

후 창틀, 노후 바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희수(전주6) 부위원장은 “학교운동장도 아파트 놀이터에도 아이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아이들이 사라졌다”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의 질이 우리의 삶을 바꿨다”며 미세먼지가 바뀌는 학교 현장의 모습을 안타까워 했다.

이어 교육위 의원들은 익산초교 병설유치원을 방문해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도내 엘리트체육의 산실인 군산상고를 방문해 야구부 선수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최영규 위원장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도내 엘리트 체육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메달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경기력을 한창 끌어올릴 수 있는 운동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